

전북 제조업 부진 속 수출·고용 회복세

4월 제조업 생산 4.4% 감소... 수출 13.5% 증가·취업자 2만2000명 늘어

전북지역 제조업 생산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출과 고용이 개선되면서 지역 경제에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소비 부진과 물가 상승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기 회복의 온기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4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 폭은 지난 3월(-6.6%)보다 다소 축소됐다.

업종별로는 음료 생산이 37.5%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자동차 생산도 10.4% 줄었고 금속가공 제품 역시 18.7% 감소하면서 제조업 전반의 생산 감소를 이끌었다.

다만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6.3% 상승했다. 이는 지난 3월 0.5% 상승에 이어 증가 폭이 확대된 것으로 일부 업종에서 생산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비를 나타내는 수요 지표는 여전히 부진했다. 4월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했다. 지난 3월(-12.4%)에 비해 감소 폭은 줄었지만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도 전년 동월보다 18.2% 감소했다. 지난 3월 30.7% 증가했던 기저효과와 함께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건설경기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4월 건축착공면적은 전년 동월 대비 101.5% 증가하며 두 배 이상 늘었고, 건축허가면적도 68.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부진했던 건설 투자에 대한 반등 효과와 함께 향후 지역 건설경기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수출 역시 성장세를 이어갔다. 4월 전북지역 수출액은 7억2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5% 증가했다. 지난 3월 17.9% 증가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며 지역 경제 회복을 견인했다.

고용시장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 4월 취업자 수는 99만9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2천 명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고용 여건이 개선되면서 고용률은 63.2%에서 64.5%로 1.3%

포인트 상승했다.

물가 상승세는 지역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하며 지난 4월(3.0%)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는 전국 평균 수준을 웃도는 흐름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4월 주택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 전세가격은 0.19% 상승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전북경제는 제조업 생산 감소와 소비 위축이라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출 증가와 고용 회복, 건설경기 개선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수 회복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향후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도내 수산식품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운영한 전북공동관이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 22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 수산식품, 국내외 판로 확대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 220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 체결 성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도내 수산식품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운영한 전북공동관이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 22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산하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2026)'에 참가해 전북공동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 전문 전시회로 국내외 식품 바이어와 유통업체, 수

출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표적 B2B 국제 식품산업 박람회다. 이번 전시회에는 도내 수산식품 분야 기업 10개사가 참가해 전북공동관을 구성하고 우수 제품 전시와 시식 행사, 비즈니스 상담 등을 진행했다. 참가 기업들은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 식품 전문 바이어, 해외 구매자를 대상으로 제품 경쟁력을 소개하며 신규 거래처 발굴과 유통망 확대를 위한 상담을 활발하게 이어갔다.

특히 동아시아, 동유럽, 이고장식품, 에이치온 등 4개 기업은 행사 기간 중 미국과 러시아 등 해외 바이어와 총 220만 달러(약 33억 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상근 기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현장 신뢰 기반 운영... 평가체계 지속 보완”

중기부, '깜깜이 심사' 지적에 해명... 멘토 실명 평가·미선정자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심사 과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업 취지와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제기된 '깜깜이 심사' 논란과 관련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창업지원사업과 달리 운영기관과 책임멘토가 보유한 창업 도전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새로운 창업지원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한 선발에 그치지 않고 선

정되지 않은 도전자에게도 제도전 멘토링과 도전 경력을 제공해 지속적인 창업 도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운영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협회, 초기액셀러레이터협회 등 창업 지원 분야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됐다. 자체 보육 역량과 전문인력, 인프라 등을 갖춘 7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19개 기관(컨소시엄 포함 190개)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에는 프라이머, 퓨처플레이 등 국내 대표 액셀러레이터를 비롯

해 KAIST, 고려대학교 등 주요 대학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모든 책임멘토의 프로필을 플랫폼에 공개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도전의 진정성', '사회적 가치', '아이디어의 구체성'을 공통 평가 요소로 설정한 뒤 운영기관별 특성에 따라 세부 평가지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관별 평가 항목은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해 공개됐으며, 각 기관은 해당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평가했다.

/오상근 기자

심사 방식은 책임멘토 1인의 평가와 기관별 자율 심의위원회 검토를 병행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다만 중기부는 책임멘토 1인 중심 평가 방식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향후 다면평가 확대와 부정 심사 방지 기준 마련 등 평가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선정자 지원도 강화했다. 중기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지원한 6만3천여 명 전원에게 평가자 실명이 포함된 평가 의견을 제공했으며, 선정되지 않은 5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제도전 멘토링과 1대1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여름철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이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전북은행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지역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15일부터 전 영업점을 무더위 쉼터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무더위 쉼터는 고객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과 함께 수분 보충을 위한 생수도 제공한다.

전북은행은 폭염 취약계층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잠시 쉬



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더위 쉼터는 영업점 운영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농식품부,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 제도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과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 관리와 처우 개선, 복무 안정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 관리 체계 구축과 근무환경 개선, 수당 지급의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신규 편입 인력 현황과 장기 인력 수급 전망 등을 반영한 공중방역수의사 수급 정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3년마다 공급 및 배치 현황, 근무환경, 복지 수준 등을 조사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보수와 수당 지급 체계도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검역본부장장과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시장·군수·구청장 등 배치기관장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FGI 협의체 개최

전북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응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지난 15일 전주제1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2분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FGI(Focused Group Interview)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는 2분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징후 모니터링 결과 '주'의 단계로 분류된 전주제1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임원들과 전북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입주기업 현황과 경영상 어려움을 비롯해 산업 현안과 건의사항, 정부 지원사업 활용 방안, 위기 대응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기업들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품 개발 이후 판로 개척과 사업화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계 지원 확대와 업종 특성에 적합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도 요청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